

기가 상호 작용할 수 있다고 이해한 것으로, 태교가 미치는 영향을 인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설명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 4. 태교론의 변용과 발전

##### 4.1. 이이(李珣)의 태교론

16세기 태교론이 성리학적 입장에서 재정리되어야 하는 사정은 유희춘의 언급에서 일부 드러나고 있었지만, 이를 본격적으로 전개한 것은 이이(1536~1584)라고 할 수 있다. 그 역시 태교를 중시하여 『성학집요』(聖學輯要)의 네 번째 장으로 교자(敎子)의 항목을 만들고, 가장 먼저 『열녀전』을 들면서 태교를 언급한다. 그와 함께 송대 학자들의 견해 약간을 인용하는데, 그 역시 태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성학집요』에서 이전의 견해를 답습하는 것과는 다르게 『소학집주』(小學集註)에서는 성리학의 이론 틀 내에서 재해석하고 있었다. 그는 조선 전기에 널리 유행한 『소학집성』(小學集成), 『소학집설』(小學集說) 등의 주석서와 여러 자료들을 집대성하여 『소학집주』를 편집하면서, 자신이 이해하고 있었던 성리학의 이념들을 그 안에 투영시켰다. 그리고 태교와 관련하여, 오눌(吳訥)의 『소학집해』(小學集解)를 근거로 다른 해석을 제시한다.

이는 임신 했을 때에 마땅히 감화되는 바를 삼가야 하니, 선(善)에 감화되면 선해지고 악(惡)에 감화되면 악해진다고 말한 것이다. 이씨(李氏)가 말하였다. “사람이 태어남은 천명(天命)의 성(性)으로 말하면 순수하고 지극히 선하여 본래 다름이 없으나 기질(氣質)의 성으로 말하면 청탁(淸濁)과 미오(美惡)의 차이가 없을 수 없으니, 맑은

자는 지혜롭고 탁한 자는 어리석으며, 선한 자는 어질고 악한 자는 불초하다. 임신의 초기는 감화받는 시기이니, 한번 자고 한번 앉고 한번 먹고 한번 보고 한번 듣는 것이 실로 청탁과 미오의 관건이 되고, 지우(智愚)와 현불초(賢不肖)의 근저가 된다. 아버이 된 자가 이것을 소홀히 하고 태만히 하여 공경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sup>33)</sup>

여기서 언급된 이씨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인성(人性)을 천명지성(天命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으로 나누어 이해하는 성리설과 연관하여 태교를 설명하고 있다.<sup>34)</sup> 그리고 율곡은 이를 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태교를 성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그런데 이 설명이 성리설을 개인적인 차원의 태교에 적용한 사례라고 한다면, 그와 함께 사회적인 차원으로도 확대해서 해석하려 한 듯 보인다.

그의 제자인 김진강(金振綱)이 기록한 어록 가운데의 대화에서 그 단서가 일부 드러난다.

물었다. 남녀가 정(精)을 섞을 때, 유기(游氣)가 그 사이에 결합한 이후에 사람이 생겨납니다. 순(舜)이 태어날 때에, 고수(瞽叟)의 기가 비록 탁했지만 지극히 맑은 유기를 받았기 때문에 성인(聖人)이 된 것입니까?

대답했다. 그렇다. 대개 부모의 기는 분수(分數)가 적고, 천지의 기

33) 『小學集註』 「立教」, “此言妊娠之時 當慎所感 感於善則善 感於惡則惡也 李氏曰 人之有生 以天命之性言之 純粹至善 本無有異 以氣質之性言之 則不能無清濁美惡之殊 清乃智而濁乃愚 美乃賢而惡乃不肖 妊娠之初 感化之際 一寢·一坐·一立·一食·一視·一聽 實清濁美惡之機括 智愚賢不肖之根柢也 爲人親者 其可忽慢而不敬畏哉.”

34) 정호훈(2009), 「16·7세기 『小學集註』의 成立과 刊行」, 『韓國文化』 4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p. 117.

운은 분수가 많다. 그런 까닭에 고수의 탁기(濁氣)가 천지의 청기(淸氣)를 당해내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순이 성인이 된 까닭이다. 비유하자면 한 잔의 매운 물을 한 항아리의 꿀물에 넣으면 매운 맛이 섞여서 단 맛이 되는 것과 같다.<sup>35)</sup>

김진강이 태아가 형성될 때 남녀의 ‘정’ 이외에 ‘유기’가 개입함으로써 현부(賢否)와 성인·악인의 차이가 생겨나는 것인가라고 묻자, 율곡은 부모의 기운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차별성은 적지만 천지의 기운에서는 차이가 크다고 대답한다. 그러면서 천지의 기운이 부모의 기운보다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질문은 인간의 심신(心身)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유기’의 존재였는데, 율곡은 천지의 기운으로 확대해서 대답한 것이다.

그런데 김진강이 다시 “『소학』에서 말하는 태교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하자, 율곡은 “기의 평평한 것을 받았다면 태교로써 교정할 수 있지만, 지극히 탁하다면 태교의 힘으로도 어찌할 바가 없다.”고 대답한다.<sup>36)</sup> 이것은 태교가 갖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는 것인데, 앞서 태교를 주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말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곡이 갖고 있는 성학(聖學)에 대한 견해를 보아야 한다. 율곡은 사람들이 장수하고 요절하는 원인을 묻는 책문(策問)에서 천지의 기운이 해답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천지의 기운은 선치(善治)의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그로 인하여 상고(上古)

35) 『栗谷全書』 卷31, 『語錄 上, 金振綱所錄』, “問 男女構精之際 游氣合於其間 然後人得而生焉 舜之生也 瞽叟之氣雖濁 而稟游氣之至淸 故爲聖人耶 曰 然 大抵父母之氣分數少 天地之氣分數多 故瞽叟之濁氣 不能當天地之淸氣 此舜之所以爲聖人也 譬如一勺辛水 投於一盆蜜水 則辛味渾化爲甘味也.”

36) 『栗谷全書』 卷31, 『語錄 上, 金振綱所錄』, “曰 天地之氣爲主 則以父母之氣 不能矯其天地之氣耶 曰 然 曰 小學所謂胎敎者何也 曰 受氣不平等者 則可以胎敎而矯之也 至於極濁者 則非胎敎之力所可爲也.”

에는 장수하는 사람이 많았고 중고(中古) 이후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한다.<sup>37)</sup> 또 인간의 기운과 천지의 기운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천지의 기운이 ‘치중화’(致中和)의 경지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개별 인간들이 좋은 기운을 받아서 명(命)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군주가 진실로 지성(至誠)의 도리로써 지성의 교화를 펴서 천지를 경륜하고 화육을 돕게 된다면…중화(中和)의 기운이 천지에 가득 차서 동물·식물로써 천지간에 해와 달, 서리와 이슬의 은총을 받는 것 모두가 인수(仁壽)의 영역으로 들게 되어 반드시 요사하는 것이 없을 것인데, 어찌 이 백성들이 장수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겠습니까?<sup>38)</sup>

그리고 치중화(致中和)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군주가 요순(堯舜)의 마음을 갖고 행동하여 도덕에 의한 교화를 구현하는 것이었다.<sup>39)</sup> 이와 같은 율곡의 성학론을 감안한다면, 태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긍정과 함께 한계를 지우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성학이 태교라는 논의에서도 근거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었다.

태교가 일반적으로 개인에 의한 개별적인 행위라고 한다면, 율곡은 그것 역시도 천지의 기운이라는 사회적 함의에 구속된다고 보는 것이다. 애초에 천지의 기운을 올바르게 해서 사람들이 이를 얻어 바르게 태어나도록 한다면 태교는 훨씬 수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제자와의 대화에서 주장한 것은 태교의 부정이 아니라 군주의 마음을 바르게 함으로써 보다

37) 『栗谷全書』拾遺 卷5, 『雜著, 壽夭策』, “上古之世 天地氣運甚盛 故得氣之厚者多 中古以下 天地氣運漸衰 故得氣之薄者多 是以 古之人 壽者多而夭者少 今之人 夭者多而壽者少 脩短善惡 雖不同矣 大概繫於氣運之盛衰矣.”

38) 『栗谷全書』拾遺 卷5, 『雜著, 壽夭策』, “人君苟能以至誠之道 推至誠之化 經綸天地 參贊化育…中和之氣 充塞天地 動植之物 日月所臨 霜露所沾者 皆囿於仁壽之域 必無夭札者矣 何患斯民之未壽乎.”

39) 『栗谷全書』拾遺 卷5, 『雜著, 神仙策』, “後之王者 苟能心堯舜之心 行堯舜之行 以此道而化天下.”

거대한 차원에서의 태교를 이루려는, 즉 경세학을 통한 사회적 태교로의 확대였다고 할 수 있다.<sup>40)</sup>

#### 4.2. 『동의보감』의 태교인식 전환

17세기 전반 허준(許浚, 1546~1615)에 의해 『동의보감』(東醫寶鑑)과 산부인과 전문의서 『언해태산집요』(諺解胎産集要)가 편찬되는데, 이 시기를 대표하는 의서라는 점에서 16세기 이래 전개된 태교의 논의가 의학에서 어떻게 정립되는지 고찰할 수 있다.<sup>41)</sup> 그런데 『동의보감』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태교의 항목이 사라지고, 대신 부모의 수양이 강조되며 임신 금기 조항 정도만 다루어지고 있는 점이다.

『동의보감』 부인문은 「구사」(求嗣)로부터 시작되는데, 조선 전기 의서들의 내용과는 사뭇 다르다. 조선 전기에는 진자명의 『부인대전양방』이 산부인과 지식의 중심이었다면, 『동의보감』에서는 16세기 이래 조선에 널리 전해진 금원사대가와 명대의 의서들이 핵심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의서들은 주진형(朱震亨, 1281~1358)의 『단계심법』(丹溪心法)·『격치여론』(格致餘論), 이천(李梴)의 『의학입문』(醫學入門)이나 우단(虞搏)의 『의학정전』(醫學正傳) 등이었다. 이들의 견해에는 진자명과 동일한 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론상에서 커다란 차이점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구사」의 항목을 검토하면 드러나는데, 가장 먼저 『단계심법』을 인용하여 임신을 위해 여성의 생리를 고르게 해야 한다는 점을 말한다. 『부인대전양방』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 항목이지만, 그에 이은 설명은 전혀 다르다.

40) 양생론을 통한 율곡의 경세학 전개에 대해서는 김성수(2005), 「16~17세기 養生書 편찬과 그 배경」, 『韓國思想史學』 24, 한국사상사학회, pp. 360-364 참조.

41) 『언해태산집요』가 내용상 『동의보감』을 대부분 따르고 있는 까닭에 여기서는 『동의보감』만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임신할 수 있게 하자면 여자들은 월경을 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남자들은 정기(精氣)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성욕을 억제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가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성욕을 억제하여 함부로 성생활을 하지 말고 정기를 축적하면서 정액을 충실하게 했다가 적당한 시기에 성생활을 해야 임신할 수 있다. 성욕을 억제하면 정기가 충실해지기 때문에 흔히 임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오래 살 수도 있게 된다. 『입문』<sup>42)</sup>

『의학입문』을 인용한 이 대목에서는 여성의 조경(調經) 외에 남자의 정기를 충실히 할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정기를 충실하게 하려면 성욕의 억제와 성생활의 절제를 말하는데, 이를 위해 마음을 안정시키라고 한다. 결국 임신을 위해서만 성생활을 해야 함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명대의 의학론과 함께 정(精)을 중시하는 허준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sup>43)</sup>

허준은 『동의보감』의 편찬 범례라고 할 수 있는 「집례」(集例)에서 정기신(精氣神)은 장부(臟腑)와 육체의 중심이라고 말하였다.<sup>44)</sup> 그리고 정·기·신 가운데 몸의 근본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 ‘정’이라고 이해하는데, 『영추』(靈樞)를 인용하여 남녀의 결합으로 태아가 생길 때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이 정이며 또한 골수와 뇌수의 근간이 된다고도 설명하였다.<sup>45)</sup> 그런데 ‘정’은 사실상 남자의 정액을 말하기 때문에, 임신에 있어서 남자의 역할을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sup>46)</sup>

42) 『東醫寶鑑』 雜病篇, 卷10, 「婦人門, 求嗣」, “求嗣之道 婦人要經調 男子要神足 又寡慾清心爲上策 寡慾則不妄交合 積氣儲精 待時而動 故能有子 是以 欲寡則神完 不惟多子 抑亦多壽(入門).”

43) 김호(2000),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서울: 一志社, pp. 191-195.

44) 『東醫寶鑑』 「集例」, “臣勤按…精氣神又爲藏府百體之主.”

45) 『東醫寶鑑』 內景篇, 卷1, 「精, 精爲身本」, “靈樞曰 兩神相薄 合而成形 常先生身 是謂精 精者 身之本也 又曰 五穀之津液 和合而爲膏 內滲入于骨空 補益髓腦 而下流于陰股.”

다음 항목은 부인을 선택하는 「상녀법」(相女法)으로, 여성의 품행을 보아야 하는 이유로 품행이 올바르면 월경이 고르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한다.<sup>47)</sup> 즉 품행의 좋고 나쁨이 결국 여성의 혈과 관련이 있으므로, 부인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바로 임신의 가능성과 직접 연결된다고도 할 수 있다.

정과 혈이 임신의 기본이라고 이해된 만큼, 임신이 안 되는 이유도 결국에는 두 가지 방면에서 찾아야 했다. 이는 임신을 위해 가장 먼저 제시한 처방약인 고본건양단(固本健陽丹)의 설명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대체로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정혈이 멀쫓고 차거나 성생활을 지나치게 한 탓으로 신수(腎水)가 약해져서 정액이 자궁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혈(母血)이 부족하거나 허하고 찬 데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회춘』

공정현(龔廷賢)의 『만병회춘』(萬病回春)을 인용한 대목에서, 불임의 원인을 여성에게만 돌릴 수 없음을 새삼 언급하고 있다.<sup>48)</sup> 그렇다고 해서 남성의 금욕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여성은 감정의 기복이 심하여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양이 중요하다고 여긴 만큼 임신을 위한 여성의 수양도 필요하였다.<sup>49)</sup>

46) 『東醫寶鑑』 內景篇, 卷1, 「精, 精爲至寶」. 여기서 언급하는 ‘정’은 남자의 정액만을 말한다. 임신에 있어서 남자의 역할이 부정되었던 것은 아니어서, 『부인대전양방』에서도 자식을 갖지 못하는 세 가지 원인 중 하나로 남자와 여자의 질병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동의보감』의 사유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47) 『東醫寶鑑』 雜病篇, 卷10, 「婦人門, 相女法」, “未笄之婦 陰氣未完 慾盛之婦 所生多女 性行和者 調經易挾 性行妬者 月水不勻 相貌惡者 刑重 顏容美者 福薄 太肥脂滿子宮 太瘦子宮無血 俱不宜子 不可不知(入門).”

48) 『東醫寶鑑』 雜病篇, 卷10, 「婦人門, 脉法」, “固本健陽丹 凡人無子 多是精血清冷 或房勞過傷 以致腎水欠旺 不能直射子宮故爾 豈可專責於母血之不足(回春).”

이어서 원하는 시기에 임신하는 방법과 금기해야 할 내용들도 언급되며, 특히 태교에 있어서 중시되는 금기와 관련된 내용은 「음양교합피기」(陰陽交合避忌)에서 자세히 나타난다. 『천금방』을 인용한 이 부분에서는 정상적이지 못한 성생활을 피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태아에게 육체적 질병, 신체적 결함 이외에 품성과 행실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sup>50)</sup> 『동의보감』에서는 오장(五臟)이 칠신(七神)을 간직하고 있으며 또한 ‘신’(神)이 칠정(七情)을 거느리기 때문에 ‘신’이 상하면 육체적 병이 된다고 설명한다.<sup>51)</sup> 따라서 신기가 손상되면 남자의 정과 여성의 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태교와 관련하여 지적할 것은 『동의보감』에서 여성의 조경과 더불어 남성의 수양을 강조한다는 사실이다. 『천금방』 등을 토대로 여전히 임신에 따른 금기나 전녀위남법 등을 소개하고 있지만 태교의 과정에서 보다 중시된 것은 수양이었으며, 이는 한편으로 수양론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조선 성리학의 발전과정과 명대 이후 의학의 반영에 따른 결과로 이해된다.

49) 『東醫寶鑑』 雜病篇, 卷10, 「婦人門, 婦人雜病」에서 부인의 병은 남자보다 10배나 더 치료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로 부인은 남자보다 성욕이 강하고 질투와 걱정 등 감정의 기복이 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50) 『東醫寶鑑』 雜病篇, 卷10, 「婦人門, 陰陽交合避忌」, “凡男女交會 當避丙丁日 及 弦·望·晦·朔·大風·大雨·大露·大寒·大暑·大雷電·大霹靂 天地晦冥 日月薄蝕 虹霓地動 則損人神不吉 損男白倍 令女得病 有子必癩癩·頑愚·瘡癩·龔 瞶·攣跛·盲眇 多病短壽 不孝不仁 又避日月星辰 火光之下 神廟佛寺之中 井竈圍 厠之側 塚墓尸樞之傍 皆所不可 夫交合如法 則有福德·大智·善人 降託胎中 仍令 性行調順 家道日隆 若不如法 則薄福·愚痴·惡人 來託胎中 令性行凶險 所作不成 家道日否 禍福之應 有如影響 可不戒哉(千金).”

51) 이상은 『東醫寶鑑』 內景篇, 卷1, 「神, 五藏藏七神」 및 「神, 神統七情傷則爲病」 참조



## 5. 맺음말

중국 고대로부터 논의된 태교는 조선 시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했다. 세종에 의해서 주도된 의서편찬 과정에서, 중국 송대 진자명의 『부인대전양방』에서 제시한 태교의 내용이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당시로써는 최신의 의학이론을 소개하여 현실에 반영한다는 의학 본래의 취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성리학적 규범을 조선에 뿌리내리려는 세종의 의도도 어느 정도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태교가 추구하는 것은 건강한 신체 이외에도 올바른 품성을 갖출 기반을 마련하는데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아직 성리학의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상태에서, 태교에 대한 논의는 의학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16세기 『소학』의 재발견을 통한 성리학의 사회적 규범화가 가속화되면서, 그 안에 담겨 있었던 태교는 새로운 논의로 전개되었다. ‘기질지성’을 근간으로 인간의 차별성을 설명하였지만, 동시에 이를 극복하고 성인의 학문으로 들어가는 길잡이인 『소학』의 가르침이 태교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태교를 성리학적인 관점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 필요했고, 부모의 선천적 기운과 함께 후천적인 요소가 태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조명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이이는 사회적 교화의 측면으로써 태교의 논의를 경세학의 근거로 제시하려는 시도를 보여주었다. 마찬가지로 16세기 이래 수용된 명대의 의학에서 수양을 중시하는 경향은 『동의보감』에도 영향을 미쳐, 태교의 시작으로써 부모의 수양을 강조하였으며 이는 조선 후기 의학계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이 태교의 논의는 시대를 거치면서 다양하게 해석·변화되어 왔다. 따라서 그 면면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학과 사상·문화 등 여러 층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또한 조선의 의학과 사상계가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보다 큰 범

위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중국과 조선의 사상사·의학사적 전개에서 나타난 태교 의식의 변화, 무엇보다 조선후기 태교서 등장 배경 등에 대해서는 이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 【자 료】

- 『胎産書』(周一謨(2000), 『고대 중국의학의 재발견』, 법인문화사, pp.448-450)  
巢元方, 『諸病源候論』(大星文化社, 1992)  
孫思邈, 『備急千金要方』(大星文化社, 1984)  
陳自明, 『婦人大全良方』(人民衛生出版社, 2006)  
盧重禮 外, 『鄉藥集成方』(杏林出版社, 1977)  
盧重禮 外, 『醫方類聚』(東洋醫科大學, 1965)  
盧重禮, 『胎産要錄』(驪江出版社, 1992, 『韓國醫學大系』 33)  
許浚, 『東醫寶鑑』(南山堂, 1998)  
鄭介淸, 『愚得錄』(民族文化推進會, 1989, 『韓國文集叢刊』 40)  
李珣, 『栗谷全書』(民族文化推進會, 1989, 『韓國文集叢刊』 44-45)

### 【논 저】

- 김호(2000),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서울: 일지사.  
周一謨(2000), 『고대 중국의학의 재발견』, 서울: 법인문화사.  
김성수(2005), 『16~17세기 養生書 편찬과 그 배경』, 『韓國思想史學』 24, 한국사상사학회  
김종섭(2012), 『唐代 理想의 人間型-胎敎를 중심으로-』, 『中央史論』 36집,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김준석(1981), 『朝鮮 前期의 社會思想』, 『東方學志』 29,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장정호(2008), 『한·중 전통 태교론(胎敎論) 비교 연구』, 『교육사학연구』 18-1, 교육사학회.  
정해은(2009), 『조선시대 태교 담론에서 바라본 이사주당의 태교론』 『여성과 역사』 10, 한국여성사학회.  
정호훈(2009), 『16·7세기 『小學集註』의 成立과 刊行』 『韓國文化』 47,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_\_\_\_\_(2008), 『조선 후기 『小學』 간행의 추이와 그 성격』 『韓國史學報』 31, 한국사학회.

- 高飞(2008), 「贾谊胎教思想初探」, 『沧桑』 2008-6.
- 李沈阳(2009), 「论汉代的胎教」, 『咸阳师范学院学报』 24-5.
- 王新智(2004), 「中医胎教学说的源流和特点」, 『安徽中医学院学报』 23-3.
- 王仁磊(2011), 「魏晋南北朝时期儿童教育略论」, 『山西师大学报』(社会科学版) 38-5.
- 吕亚虎(2009), 「帛书《胎产书》所见早期孕育信仰浅析」, 『江汉论坛』 2009.6.
- 张越平·阮氏水(2012), 「从《妇人大全良方一胎教门》看中医胎教学」, 『天津中医药』 29-6.
- 杨中新(1981), 「王充的胎教思想」, 『延边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1981-1·2.
- 李欢玉·雷磊(2013), 「浅析《胎产书》的胎孕胎育理论」, 『湖南中医药大学学报』 33-5.
- 邓玉娜(2002), 「中国古代胎教文化及传统思维」, 『文史杂志』 2002-4.
- Kim Sung soo (2010), "Publication of Obstetric Books and Actual Childbirth Cases of the Chosŏn Dynasty", *Horizon 2*,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원고 접수일: 2013년 10월 31일

심사 완료일: 2013년 11월 25일

게재 확정일: 2013년 12월 3일

ABSTRACT

---

## The Acceptance and Development of Antenatal Training Theories during the Early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Kim, Seong-su\*

Antenatal training (胎教), which had been discussed since ancient times in China, began to be introduced in earnest from the Joseon Dynasty period. In the process of medical book compilation led by Sejong, the contents of antenatal training presented in the *Fùrén dàquán liángfāng* (婦人大全良方), which was written by Chén zì-míng (陳自明) in the Sung Dynasty period of China, was established as the core of antenatal training. At that time, although there was on one hand an original medicinal intent to introduce the newest medical theories which could be applied, also reflected in this endeavor is the intention of Sejong who wanted neo-Confucian norms to take root in Joseon. However, since studies of the quality of disposition were not yet actively carried out, discussion on antenatal training remained within the medical dimension.

As the adaptation of the social norms of neo-Confucianism came to be accelerated in the 16th century through the rediscovery of *Sohak* (小學), it was necessary to give meanings to antenatal training discussed in *Sohak*

---

\*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from the viewpoint of neo-Confucianism. In addition, Lee Ee (李珥) attempted to present discussions on antenatal training as a grounds for statecraft studies in terms of social enlightenment. However, a change also appeared in *Donggeuibogam* (東醫寶鑑) which emphasized the abstinence of the father based on medical grounds — a theory which had been central to medicine since the four famous physicians (四大醫家) of the Geum-Yuan Dynasty period.